

한국에서는 푸대접 받고, 국제도서전에서는 상 받고



김기덕 감독의 《사마리아》가 제54회 베를린 영화제 감독상을 받았다. 동양 영화나 감독에게 인심을 쓰지 않기로 유명한 해외 영화제가 아시아, 그것도 한국의 감독에게 감독상을 안겨준 것은 이례적이다. 수상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매체와 비평가들은 뒤늦게 그의 영화가 갖는 실험성에 찬사를 보내기 바쁘다. 몇 년 전 〈악어〉와 〈파란대문〉이 개봉됐을 당시의 언론 반응을 떠올려보면 이번 수상과 관련해 김 감독의 영화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태도는 360도는 아니더라도 250도 쭈은 방향전환을 한 셈이다. 관객들도 마찬가지다. 관객들은 김 감독의 영화를 ‘삼마이가 등장하는 싸구려 영화’ 혹은 ‘보기 거북한 장면들이 속출하고 돈 안들인 영화’로 폄하하기 일쑤였다. 드라마틱한 플롯과 블랙버스터 규모의 자본이 투입된 영화에 길들여진 관객들에게 그의 영화는 ‘참신한 영화’가 아니라 ‘낯선’ 영화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관객들이 나서 그의 영화를 기다린다.

한국 어린이 출판계에도 비슷한 이슈가 생겼다. 최근 세계도서전 중에서도 꽤 큰 규모를 자랑하는 볼로냐아동도서전은 한국 어린이책 두 권에 ‘볼로냐 가라찌 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줬다. 수상작은 《괄죽 할멈과 호랑이》(픽션부문 우수상), 《지하철은 달려온다》(논픽션부문 우수상). 특히 두 권의 책 중 초방책방의 《지하철은 달려온다》는 출간 당시 국내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어렵게 초판 3,000부를 찍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번 수상으로 재평가 받을 기회를 잡았다. 초방책방의 신 경숙 대표는 “한국 부모들이 스토리 위주의 그림책 혹은 예쁜 일러스트가 있는 책에 익숙하기 때문에 일러스트가 실험적이거나 스토리가 없는 어린이책을 무척 낯설어한다”고 분석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국내 관객들에게 외면당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해외 출판관계자는 《지하철은 달려온다》를 매우 특별한 작품으로 존중했다. 전원풍의 아름답고 밝은 이미지를 내세우는 기존 어린이책과 차별화해 콜라주 형식의 그림을 내세워 도시문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스토리가 어린이책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그들은 읽어낸 것이다. 신 대표에 따르면 이 책은 수상 소식 발표 이후 하루에 약 100부 정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이 판매량이 한달 간 지속된다면 초판 분량인 3,000부가 모두 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신 대표는 “우리측에선 이 책을 ‘서정적 논픽션’이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이 독특한 형식에 독자들이 낯설어하고 혼란스러워 하겠지만 곧 반기게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특히 이번 수상으로 인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재평가 될 기회를 얻은 것 같아 기쁘다”고 덧붙였다.

조호상 씨가 글을 쓰고 윤미숙 씨가 그림을 그린 《괄죽 할멈과 호랑이》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한 할머니가 괄죽을 쑤어준 지게, 맷돌 등의 도움을 받아 곤경을 헤쳐 나간다는 내용의 전래동화다. 한국의 전통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스토리도 재미있지만 한지를 뜯어 표현한 일러스트에서는 토속적인 느낌이 풍긴다.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다. 좋다, 나쁘다는 가치판단은 그것을 보고 읽은 사람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지 접해보기도 전에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평가에 편승해 문화향유 기회를 놓치는 오류를 범한다. 조금만 튀어도 ‘낯설다’, ‘거북하다’, ‘질서에 어긋난다’는 평에 동의한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확장시켜줄 참신한 콘텐츠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남의 나라에서 사랑받는 것도 이런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볼로냐 도서전 수상은 알록달록한 어린이책만 즐겨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숙제를 던져준다. “유명 해외작가의 동화만 좋은 동화로 여기지 말라.” 사실, 이런 숙제는 책을 사주는 부모와 책을 만드는 출판사가 먼저 풀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

김청연 기자